

종오리 ps 도입한 소일농장을 찾아서



조 문 규 사무국장

지난 7월 오리고기 소비부진과 생산량 증가에 따라 불어닥친 오리업계의 불황은 최근 대규모 오리 계열화 사업체와 개별사육농가, 소규모 유통업체간에 사육량 감축에 의한 경기회복을 위한 책임론이 거론되고 있고 부화업계와 유통업계, 소규모 부화장과 대규모 부화장간의 사육량 감축 논쟁이 거세지고 있다.

그런가 하면 부화장간의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난국을 극복하자는 여론이 드세지고 있으나 이 모든 논쟁의 핵심이 될 수 있는 부화장의 생산성을 어떻게 높이고 사육농가에게 보다 품질 좋은 새끼오리를 공급하여 국내 오리업의 생산성을 높여 궁극적으로 수입육과의 경쟁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로 귀결되지 못하는 것은 오리업 발전 측면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아무리 부화장간의 합의에 의해 종오리 사육량을 줄인다고 하더라도 현재 오리업이 안고 있는 종오리 개량에 의한 보다 저렴하고 품질 좋은 새끼오리의 생산이라는 대명제를 풀지못하면 이같은 합의가 단기적인 대안은 될 수 있으나 장기적인 오리업 발전을 보장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8월초와 8월말을 전후로 종자용 ps 종오리 1만수여수를 도입하여 국내 오리 부화업계에 뛰어난 슬워농장은 이같은 논쟁이 부질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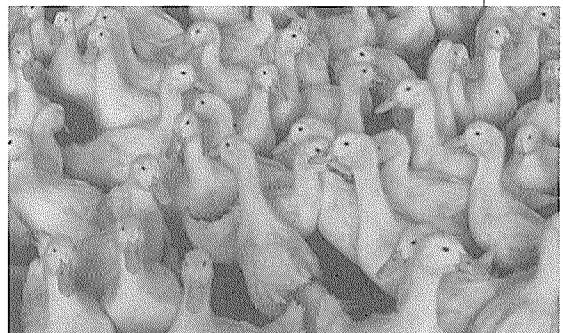
다. 오리부화업계 사상 초유의 새끼오리 가격이 형성된 지난 8월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여 오리부화업을 시작한 슬임농장을 찾아 사업배경과 향후 사업방향을 들어봤다.

오리업계에 생소하기만한 슬임농장(대표 차준열)은 육계업계 종사자들은 이천의 차 씨 형제하면 한 번쯤은 들었을 만큼 육계업에 오랜 경륜이 있는 농장으로 알려지고 있다. 육계사육만 20년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슬임농장이 종계 부화업에 진출한 것은 지난 96년이라는게 차 대표의 설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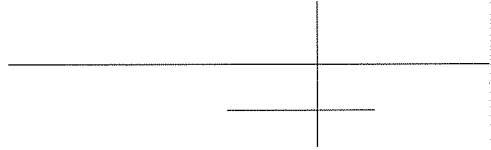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이치리에 소재한 슬임농장은 현재 육용종계 11만5천수를 사육하여 상업용 육계병아리를 전문으로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부화장은 충남 아산에 소재하고 경기도 이천, 발안, 홍북 홍주 등 육용종계를 사육하는 3개의 농장이 있다는게 차대표의 설명이다. 오리종계장을 기본적으로 한 번 있다고 밝힌 차대표는 오리에 대해서는 전혀 문외한이라며 업계관계자들의 많은 조언을 구했다.

「국내 오리업의 현재 위치는 육계와 비교해 볼 때 지난 70년대말 80년대 초와 흡사한 상황으로 발전되고 있다」고 나름대로 소신을 밝힌 차대표는 오리종계업에 뛰어든 가장 큰 이유를 향후 오리사육이 크게 활성화 될 것이란 확신과 그동안 종계업계에서 터득한 부화업 기술을 오리에 접목하면 충분히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나름대로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밝혔다.

닭고기 소비가 크게 증가한 시기가 치킨이 국내에 도입된 시기라고 분석한 차대표



프랑스에서 도입된 종오리 PS는 용인시 이동면에 소재한 별도의 축사에서 육성관리되고 있었다. 3백80평내외 축사에서 40일내외를 육성한 후보종오리들은 외관상 고르게 성장하고 있었으며 이천에 새로짓고 있는 종오리사가 완공되면 옮긴다는 계획이다.



는 건강식품인 오리고기 역시 외식산업의 발달로 향후 소비가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축종으로 내다봤다.

이같은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오리업에 대해서는 전혀 문외한으로 부화업계에 뛰어들다는 것이 위험부담이 있지않는가에 대한 우려에 대해 책만큼 좋은 스승은 없으며 원칙을 준수하면 어떤 어려움도 헤쳐갈 수 있을 것이란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처음 종오리 수입을 추진할 때 주위에서 종오리업계의 현실을 직언하며 ps에서 생산된 새끼오리를 이용할 것을 권한적이 있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하면 적은 비용을 들여 새끼오리를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원칙을 지키지 않고 하는 사업은 오래갈 수 없다는 진리를 믿기 때문입니다.

이같은 바탕위에 새끼오리를 생산하는 이외에 부화장이 책임질 일은 철저히 책임져 주면서 사육농가와 호흡하면 부화장이 해야 할 사업상 역할은 1차적으로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오리업 발전을 위한 소비확대 등 공동의 역할은 2차적으로 병행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종계를 오랜동안 사육한 경험상 종계장의 위생관리는 생산성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밝힌 차 대표는 프랑스에서 도입된 종오리 ps는 용인시 이동면에 소재한 별도의 축사에서 육성관리되고 있었다. 3백80평내외 축사에서 40일내외를 육성한 후보 종오리들



은 외관상 고르게 성장하고 있었으며 이전에 새로 짓고 있는 종오리사가 완공되면 옮긴다는 계획이다.

향후 사육되는 종오리는 주기적으로 후보 종오리를 도입하여 현재 육성된 축사에서 육성한다는 계획을 밝힌 차대표는 오리부화업에 종사하는 한 종오리는 철저하게 수입된 ps를 이용하여 새끼를 생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솔잎농장이 지난 8월에 도입한 종오리는 정확하게 암컷만 1만5백수가 도입되었고 수컷을 포함하면 1만2천7백수가 도입됐다는게 솔잎농장의 설명이다. 종오리 도입에 따른 투자비용은 제반경비를 포함하여 총 1억3천만원 이상이 소요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오리 사육에 대한 공부로 요즘 시간 가는 줄 모른다고 밝힌 차대표는 그러나 오리가 사료먹는 것을 보면 정신이 없고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울어대는 것을 보면 오리는 오리라며 종계와 많은 차이가 있음도 털어놨다.

앞으로 오리업계 오래 종사한 선배들의 많은 조언과 지도편달을 거듭 당부한 차대표는 품질 좋은 새끼오리 생산과 종오리 생산성을 높여 오리업 발전에 기여하는 부화장이 되기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로 향후 사업계획을 대신했다.

종계부화업계로는 두 번째로 오리부화업에 뛰어든 솔잎농장 특히 오리업계 구조조정이라는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에서 오리부화업을 시작한 솔잎농장이 향후 오리업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되며 또한 오리 부화업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부화장으로 자리해 주길 기대해 본다.